논어 14편 헌문 37장 · 원문·풀이

子曰：「莫我知也夫！」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

독음 · 자왈 막아지야부 자공왈 하위기막지자야 자왈 불원천 불우인 하학이상달 지아자 기천호

쉬운 풀이(요약) ·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늘과 남을 원망하지 않고, 가까운 일에서 배워 높은 이치로 나아간다. 자신을 아는 것은 하늘일 것이라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莫 없을 막 막 / 我 자기 아 아

知 알 지 / 也 어조사 야 / 夫 지아비 부 부 / 貢 바칠 공 공

何 어찌 하 하 / 爲 할 위 / 其 그 기 / 不 아닐 불

怨 원망할 원 원 / 天 하늘 천 천 / 尤 가장 우 우 / 人 사람 인

下 아래 하 하 / 學 배울 학 / 而 말이을 이 / 上 윗 상

達 통달할 달 달 / 者 놈 자 / 乎 어조사 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